

#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A.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I. 머리말	III.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성장과 확산
1. 연구의 배경	1. 연도별 확산의 추이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한 책’ 독서운동의 지속성
II. 선행연구	IV.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독서운동 확산의 시기적 특성 및 지속성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2013년 6월까지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584개 ‘한 책’ 프로젝트들의 확산 현황 및 특성을 태동기 (1998년-2001년), 성장기 (2002년-2006년) 및 재도약기 (2007년-현재)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한 ‘한 책’ 프로젝트들의 웹사이트 등을 분석하여 적어도 50개(8.9%) 이상 ‘한 책’ 프로젝트들의 지속성, 특히 초기에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들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지속적인 일부 ‘한 책’ 프로젝트의 새로운 변화 모색 및 ‘The Big Read’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 책’ 독서운동 모형의 확산 추이는 향후 주목할 만하다.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미국공공도서관, 지역사회 독서운동, 지속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continuity of ‘One Book, One City’ commun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A. An analysis of 584 ‘One Book’ projects registered in the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s shows that this innovative model of reading campaign has been diffused through three stages: the beginning(1998-2001), the growth (2002-2006), and the second take-off(2007-present). The stability of more than fifty ‘One Book’ projects was confirmed and the continuing diffusion of ‘One Book’ model through ‘The Big Read’ Initiative and some projects' attempt to try new directions seem worth observing.

Keywords: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Public libraries in the U.S., Community movement, Continuity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jade@cju.ac.kr)

• 논문접수: 2013년 7월 10일 • 최초심사: 2013년 8월 28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17일

## I. 머리말

### 1. 연구의 배경

지난 1998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시애틀 공공도서관 워싱턴 도서센터의 주관으로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 처음 시작된 이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하 "한 책" 독서운동'이라 부름)은 하나의 지역사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며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이 주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독서토론으로 확장되는 형태의 독서운동이 '한 책, 한 도시'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2001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시작되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One Book, One Chicago' 프로젝트 덕분이다. 1998년부터 십오 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사이 미국 전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정착된 '한 책' 독서운동은 금세기 공공도서관이 주도한 가장 혁신적인 활동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Center for the Books, Library of Congress) 웹사이트의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한 책' 독서운동의 주별(州別) 리스트<sup>1)</sup> 및 '한 책'으로 선정되었던 책들의 작가별 리스트<sup>2)</sup>를 볼 수 있다. 이 리스트들은 사서를 위한 '지방/지역사회 정보자원 (Local/Community Resources)'으로 제공되며,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정보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는 개별 지역사회의 독서운동을 '프로젝트(project)'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2013년 6월 30일 현재 모두 590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중단되었으나, 상당수는 아직도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 책' 독서운동이 벌써 십오 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자는 이전 연구<sup>3)</sup>에서 이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연구는 2011년 1월까지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 사이트에 등록된 '한 책' 프로젝트들의 시작과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한 책' 독서운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기도 하였고, 기존 데이터의 분석 시 다소 계수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오래 지속되는 프로젝트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번만 하고 중단된 '한 책' 프로젝트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 [cited 2012. 8. 2].

2)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Selected List by Author,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authorlist.php> [cited 2012. 8. 2].

3)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서울 : 조은글터,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속성의 유지 요인을 분석하며, 향후 지속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에서는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에 2013년 6월 30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590개 프로젝트 가운데 Tennessee 주 Nashville의 ‘Big Big Book Club’, Wyoming 주의 주 전역(statewide) 프로그램 ‘Wyoming Reads’ 등 과 같이 이름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읽은 책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6개를 제외하고, 모두 584개 프로젝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한 책’ 독서운동 프로젝트에서 한 번 시행되는 사례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시애틀의 ‘Seattle Reads’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시행되었으므로 모두 15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보며,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는 2001년 가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시행되었으므로 매년 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수할 때 199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등록된 ‘한 책’ 프로그램 수는 모두 2,402개에 이른다. 모든 지역사회가 매년 진행한 ‘한 책’ 프로그램의 정보를 즉각 갱신하여 등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는 2013년 현재 진행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단 등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한 책’ 프로젝트나 주관 도서관의 웹사이트 등을 직접 조사하여 데이터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한 책’ 독서운동 프로젝트의 확산 속도와 지속성에 기초한 동향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지역별 분포, 각 프로젝트의 최초 시작연도 및 2013년 현재까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였다.

## II. 선행연구

‘한 책’ 독서운동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고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학술적 관점에서 논한 연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 영국의 University of Birmingham, Department of American & Canadian Studies 연구팀이 삼년에 걸쳐 미국, 영국, 캐나다의 대중 독서운동을 비교 및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캐나다의 ‘One Book, One Community’, 미국의 ‘One Book, One Chicago’ 및 영국의 ‘Liverpool Reads’의 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다.<sup>4)</sup> 이들의 연구

4) Danielle Fuller and DeNel Rehberg Sedo, “Mass Reading, New Knowledge?: Reading for Community in Contemporary Southern Ontario,” *Presentation delivered at “Material Cultures and Creation of Knowledge,”*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는 ‘한 책’ 독서운동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고, 대중독서운동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가운데, 캐나다 ‘One Book, One Community’ 참여자 및 비참여자 인터뷰, 온라인 서베이 등으로 시민들의 욕성을 듣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 또한 아직은 ‘한 책’ 독서운동 확산 초반에 시행된 것으로 이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목할 만한 개별 ‘한 책’ 독서운동의 사례 등은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sup>5)</sup>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3년 ‘한 책’ 독서운동의 시범사업 시행 이래, ‘한 책’ 독서운동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sup>6)</sup>를 수행해 온 윤정옥은 최근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취합하여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펴내고, ‘한 책’ 독서운동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책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의 발아 시점부터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의 지속적인 성장의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대중 독서운동의 모형으로서 누적되어 온 보편적 특성과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한 책’으로 선정되어 읽힌 책들의 주제, 장르 등 특성과 경향, 저자에 대한 선호도 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들이 함께 그 책들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용재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한 책’ 독서운동에 대한 연구를 다수 수행하면서,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이 독서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북 원부산’ 독서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별 ‘한 책’ 독서운동 시행 사례들을 수집하며 ‘한 책’ 독서운동의 발전전략을 제안하였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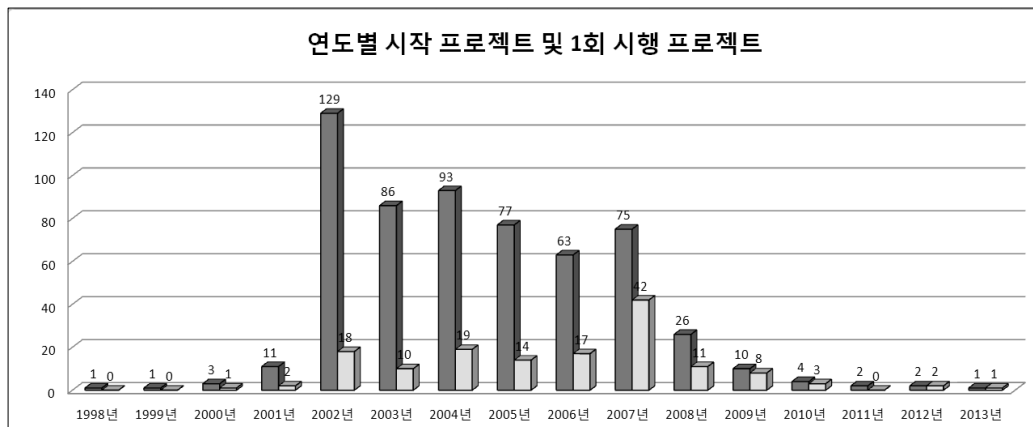
---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The Centre for the History of the Book), 22-24 July, 2005; Danielle Fuller and DeNel Rehberg Sedo, Minireport to the Organizing Committee of One Book, One Community, Kitchener/Cambridge/Waterloo, ON, Canada, 9 November 2004.*

- 5) Beth Dempsey, "One Great Idea: Why Your Library Should Get on the One Book, One Community Bandwagon," *Library Journal*, Vol.134, No.14(September 2009), pp.19-22; Pamela C. Jewett, Jennifer L. Wilson and Michelle A. Vanderburg, "The Unifying Power of a Whole-School Read,"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Vol.54, No.6(March 2011), pp.415-424; Mae L. Rodney, "Building Community Partnerships: The 'One Book, One Community' Experience," *C&RL News*, Vol.65, No.3(2004), pp.130-2, 155.
- 6) 윤정옥,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The Big Read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311-333;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3), pp.63-81;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5-32;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5. 9), pp.27-44.
- 7) 이용재,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9), pp.5-23; 이용재, 황은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성과 실천방안 연구: 독서토론포럼자료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63권, 제2호(2008. 12), pp.48-70;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전략: '원북 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47-265; 이용재, "한국 독서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3), pp.5-25.

### Ⅲ.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성장과 확산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에 등록된 584개 ‘한 책’ 프로젝트의 연도별 시작 추이 및 1회만 시행된 프로젝트의 분포는 <그림 1>에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의 왼쪽 막대는 연도별 시작 프로젝트 수를 나타내고, 오른쪽 막대는 그 해 시작되어 단 한 번만 진행된 프로젝트 수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 전체의 연도별 확산의 추이를 비롯하여 단 한 번만 시행된 ‘한 책’ 프로젝트들 및 오래 지속된 ‘한 책’ 프로젝트들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2>는 매년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1회만 시행된 프로젝트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1> 연도별 시작 프로젝트 및 1회 시행 프로젝트 (2013년 6월 현재)

<표 1> 연도별 시작 프로젝트 및 1회 시행 프로젝트 (2013년 6월 현재)

시작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시작	1	1	3	11	129	86	93	77
1회 시행	0	0	1	2	18	10	19	14
비율	0%	0%	33.3%	18.2%	14.0%	11.6%	20.4%	18.2%
시작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작	63	75	26	10	4	2	2	1
1회 시행	17	42	11	8	3	0	2	1
비율	27.0%	56.0%	42.3%	80.0%	75.0%	0%	100%	100%

#### 1. 연도별 확산의 추이

이전 연구<sup>8)</sup>에서 2011년 1월 당시 등록된 588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정확한 실시연도 혹은 읽은

책을 등록하지 않은 14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 가능한 프로젝트가 574개였던 것에 비하여, 2013년 현재 등록된 프로젝트 590개 중 실제 시행된 프로젝트는 모두 10개가 증가한 584개이다.

이들 가운데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한 개씩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00년에 3개, 2001년에 11개, 2002년에 129개가 시작되었다. 2002년 모두 129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03년에 86개, 2004년에 93개, 2005년에 77개, 2006년에 63개, 그리고 2007년에 75개가 각각 시작되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2008년부터는 증가가 다소 둔화되어 26개가 시작되었고, 2009년에는 10개, 2010년에는 4개,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2개, 그리고 2013년에도 1개가 새로 시작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1998년부터 2013년 사이 매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책’ 프로젝트의 연도별 분포 추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기간을 ‘한 책’ 독서운동의 태동기(1998년-2001년), 성장기(2002년-2006년) 및 제도약기(2007년-현재)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가. ‘한 책’ 독서운동의 태동기: 1998년-2001년

‘한 책’ 독서운동의 전체 성장 과정에서 매년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의 추이를 보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 책’ 독서운동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 처음 시작된 이래 비교적 완만하게 새로운 지역사회 ‘한 책’ 독서운동이 퍼져나갔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삼년 동안 모두 16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아직은 서서히 그 영향력이 확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은 2004년 ‘Seattle Reads’로 그 이름을 바꾸었으나, 매년 한 차례씩 지금까지도 가장 안정되게 지속되는 선구적 ‘한 책’ 프로젝트이다.

1999년에는 Kansas 주 Lawrence에서 Lawrence Public Library 주관으로 ‘Read Across Lawrence’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는 모두 세 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New York 주 Rochester에서 ‘If All of Rochester Read the Same Book’, Buffalo에서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가 각각 시작되었다. 이들은 둘 다 첫 해에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의 1999년 프로그램에서 읽었던 Ernest J. Gaines의 *A Lesson Before Dying*을 읽었다.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에는 Buffalo는 2007년까지, Rochester는 2008년까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이들의 웹사이트를 직접 살펴 본 결과, 2012년까지도 매년 한 차례씩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Virginia 주가 주 전역 프로젝트로서 시작한 ‘All Virginia Reads’는 William Styron의 *Sophie’s Choice*를 읽었으나,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1년에는 모두 열 한 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Minnesota 주 Owatona의 ‘One City, One Book’과 Kentucky 주의 주 전역 프로젝트인 ‘What If All Kentucky Reads the

8) 윤정옥, 전계서.

Same Book’만 단 한 번 시행되었을 뿐, 나머지는 이후에도 진행되었다. 이들 중 North Carolina 주 Watauga County의 ‘Summer Reading Program’과 New York 주 Syracuse/Onondaga County의 ‘Central New York Reads’도 *A Lesson Before Dying*을 읽었다. 이 해 시작된 가장 대표적인 ‘한 책’ 프로젝트는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로서 그 다음 해부터 ‘한 책’ 독서운동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매년 두 차례씩 2013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 나.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기: 2002년-2006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오년 동안은 새로 시작하는 ‘한 책’ 프로젝트가 급격히 증가한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한 해에만 미국 전역에서 모두 129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86개, 2004년 93개, 2005년 77개의 새로운 ‘한 책’ 프로젝트가 각각 시작되었고, 2006년에는 63개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 기간 동안 모두 448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급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2002년을 기점으로 매년 수십 개의 새로운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는 앞서 2001년 가을 처음 시작된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가 미국 국내 및 국제 언론을 통해 크게 홍보되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2002년 시작된 129개 ‘한 책’ 프로젝트들 가운데 Indiana 주 Northwest Indiana의 ‘Books to Bridge the Region’, Texas 주 Houston의 ‘Books on the Bayou: Houston Reads Together’, Nevada 주 Washoe County의 ‘Read.Washoe.Read’ 등 모두 9개 프로젝트가 *A Lesson Before Dying*을 읽었고, Maine 주 Bath and Brunswick의 ‘Midcoast Community Read’, Florida 주 Jacksonville의 ‘Jax Reads’, Colorado 주 Colorado Springs의 ‘All Pikes Peak Reads’ 등 16개 프로젝트는 *To Kill a Mockingbird*를 읽었다는 것이다. 전자는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에서 두 번째로 선정된 책이고, 후자는 ‘One Book, One Chicago’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책이다. 이것은 2002년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들이 이 선구적인 두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한 책’ 프로젝트들이 이 책들에 대하여 일명 ‘툴박스’라고 불리는 독서와 토론 자료집을 만들어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 것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두 책은 이후에도 많은 ‘한 책’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었고, 특히 *To Kill a Mockingbird*는 ‘한 책’ 독서운동을 하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책이 되었다.

이 시기에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두 번 이상씩 진행이 되었다. 2002년 시작된 129개 ‘한 책’ 프로젝트 중 18개(14.0%), 2003년 시작 86개 프로젝트 중 10개(11.6%), 2004년 시작 93개 프로젝트 중 19개(20.4%), 2005년 시작 77개 프로젝트 중 14개(18.2%), 2006년 시작 63개 프로젝트 중 17개(27.0%)만 한 번만 시행되었을 뿐이다. 즉 이 기간 동안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들 가운데 평균 18.2% 정도만 한 번 시행되었고 나머지 80% 이상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 다. ‘한 책’ 독서운동의 재도약기: 2007년-현재

‘한 책’ 독서운동의 확산에 있어서 2007년부터는 ‘재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오년간의 성장기에서 아주 많은 ‘한 책’ 프로젝트들이 새로 시작되었던 것에 비하여,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6년 동안에는 모두 120개의 새로운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07년은 ‘재도약기’의 시작을 알리는 해로서, 이 해에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하 NEA라 부름)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고전문학 독서운동인 ‘The Big Read’ 독서 이니셔티브(이하 ‘The Big Read’라고 부름)가 전국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한 책’ 독서운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The Big Read’는 공식적으로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한다고 천명하였는데, 그 시범사업은 2005년에 시작되었고 당시 10개 지역사회가 참가하였다.<sup>9)</sup>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 2007년에 새로 시작되었다고 등록된 75개의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California 주 Santa Clarita Valley의 ‘The Big Read: Santa Clarita Valley’, Arizona 주 Safford City (Graham County)의 ‘The Big Read’, Alaska 주 Anchorage의 ‘The Big Read’, Arkansas 주 Fayetteville의 ‘The Big Read’ 등 22개가 ‘The Big Read’라는 이름을 갖고 진행되었다. 이 해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 중 42개(56.0%) 프로젝트는 한 번만 진행되었다.

2008년에는 26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고, 이들 가운데 11개(42.3%)가 한 번만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10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으나 8개(80.0%)가 한 번 진행되었고, 2010년에는 4개가 새로 시작되어, 3개(75.0%)는 한 번만 진행되었고, Massachusetts 주 Pembroke의 ‘One Book’은 2010년 Greg Mortenson와 David Oliver의 *Three Cups of Tea Relin*을 읽은 이래, 2011년과 2012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또한 2011년 시작된 Massachusetts 주 Malden의 ‘Malden Reads’과 Dedham의 ‘Dedham Reads Together’ 둘 다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벌써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Massachusetts 주 Lowell의 ‘Lowell Reads’와 North Dakota 주 Fargo, West Fargo, Moorhead에서 ‘One Book Community’가 시작되어 한 번씩 진행되었다. 한편 2013년에도 Missouri 주 Chillicothe의 ‘Livingston County’가 *To Kill A Mockingbird*를 읽으며 ‘한 책’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후반에 새로 시작되는 ‘한 책’ 프로젝트의 수가 적다고 해서 ‘한 책’ 독서운동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부터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한 ‘The Big Read’가 대규모로 전국에서 진행 되면서, 참여하는 지역사회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

9) John Y. Cole, *One Book Projects Grow in Popularity*, 2006, <<http://www.loc.gov/loc/lcib/0601/cfb.html>> [cited 2013. 7. 8].



등록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진행되는 ‘The Big Read’에 모두 75개 지역사회가 참여하였고,<sup>10)</sup>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진행되는 ‘The Big Read’에는 모두 77개 지역사회가 참여하였지만,<sup>11)</sup>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는 이들이 모두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2007년 이후의 시기는 일찍이 시작된 많은 ‘한 책’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Livingston County’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책’ 프로젝트들도 있으며, ‘The Big Read’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매년 칠십여 개의 지역사회가 ‘한 책’ 독서운동 형태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 책’ 독서운동의 재도약기라고 해도 좋을 듯 하다.

## 2. ‘한 책’ 독서운동의 지속성

### 가. ‘한 책’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 프로그램

〈표 2〉 ‘한 책’ 프로젝트의 진행 횟수 별 분포 (2013년 6월 현재)

주	대표적 프로젝트		진행		
	지역	프로젝트 명칭	횟수	프로젝트	비율
Illinois	Chicago	‘One Book, One Chicago’	14	1	0.2%
Washington	Seattle	‘Seattle Reads’	13	2	0.3%
Connecticut	Eastern Connecticut	‘One Book, One Region’	12	1	0.2%
California	Santa Monica	‘Santa Monica Reads’	11	6	1.0%
Kansas	Lawrence	‘Read Across Lawrence’	10	12	2.1%
Ohio	Alliance	‘One-Book, One-Community’	9	9	1.5%
Minnesota	Eden Prairie	‘Eden Prairie Reads’	8	12	2.1%
Illinois	Peoria	‘Peoria Reads’	7	31	5.3%
Kansas	* State-wide program	‘One Book, One State: Kansas Reads to Preschoolers’	6	49	8.4%
Kentucky	Bowling Green	‘One Book, One Campus, One Community’	5	54	9.2%
Massachusetts	Northampton	‘On the Same Page’	4	76	13.0%
Michigan	Chelsea	‘Chelsea Reads Together’	3	88	15.1%
California	Pico Rivera	‘One Book, One City’	2	95	16.3%
Pennsylvania	Lancaster and York Counties	‘United We Read’	1	148	25.3%
합계				584	100%

10)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Participating Communities Search,” 2011, <<http://www.neabigread.org/communities.php>> [cited 2011. 1. 28].

11)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Participating Communities Search,” 2013, <<http://www.neabigread.org/communities.php>> [cited 2013. 7. 6].

지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의 총수는 584개에 이른다. 그러나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모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 3>은 ‘한 책’ 프로젝트들의 진행 프로그램 횟수에 따른 분포를 보여준다. 거의 대부분의 ‘한 책’ 프로젝트들이 일 년에 한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Chicago의 ‘One Book, One Chicago’와 같이 일 년에 두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책’ 프로젝트들도 간혹 있다. 따라서 <표 3>의 프로그램 진행 횟수가 반드시 시행 기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편 <표 3>은 2013년 6월 현재까지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한 책’ 프로젝트들의 진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일부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책’ 독서운동의 일반적이며 대략적인 지속성의 면모를 관찰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전체 584개 ‘한 책’ 프로젝트들의 프로그램 진행 횟수를 보면, Chicago의 ‘One Book, One Chicago’가 14회로 가장 많이 진행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Seattle의 ‘Seattle Reads’와 Massachusetts 주 Falmouth의 ‘What’s Falmouth Reading?’이 각각 13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Connecticut 주 Eastern Connecticut의 ‘One Book, One Region’이 12회, California 주 Santa Monica의 ‘Santa Monica Reads’ 등 6개 프로젝트가 11회, Kansas 주 Lawrence의 ‘Read Across Lawrence’ 등 12개 프로젝트가 10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2년 이전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는 모두 16개로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는다. 2002년 이후에야 비로소 많은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므로, 대부분은 10회 이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앞서 프로그램을 11회 진행하였다고 한 6개의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Santa Monica Reads’ 등 3개는 2002년에 시작되었고, Iowa 주의 주 전역 프로젝트인 ‘All Iowa Reads’ 등 3개 프로젝트는 2003년에 시작되었다. 또한 10회 진행하였다고 한 12개 프로젝트 가운데 ‘Read Across Lawrence’는 1999년, New York 주의 Syracuse and Onondaga County의 ‘Central New York Reads’가 2011년 시작되었으나, Ohio 주 Cincinnati의 ‘On the Same Page Cincinnati’ 등 7개 프로젝트는 2002년, California 주 Silicon Valley의 ‘Silicon Valley Reads’를 포함한 3개 프로젝트는 2003년에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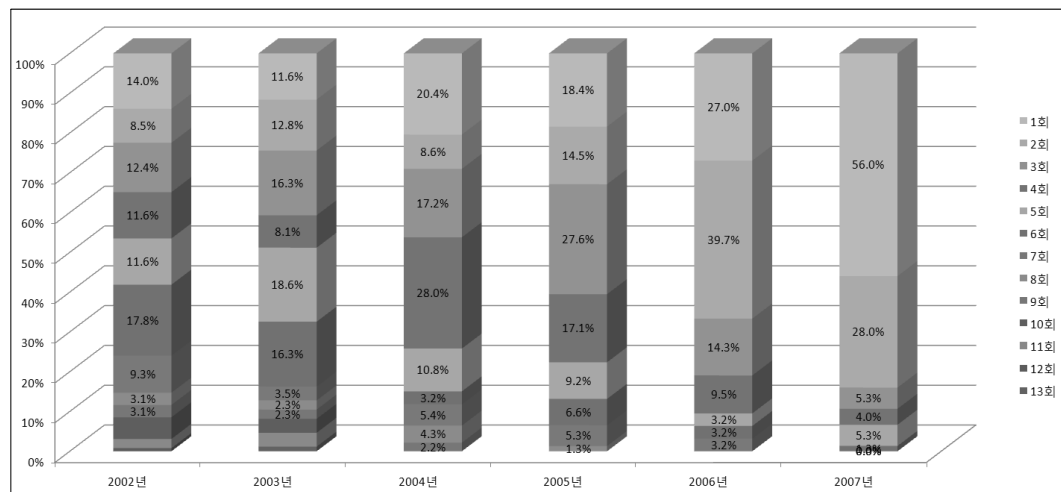
한편 Ohio 주 Alliance의 ‘One-Book, One-Community’ 등 9개 프로젝트는 9회의 프로그램, Minnesota 주 Eden Prairie의 ‘Eden Prairie Reads’ 등 12개 프로젝트는 8회의 프로그램, Illinois 주 Peoria의 ‘Peoria Reads’ 등 31개 프로젝트(5.3%)는 7회의 프로그램, Kansas 주의 주 전역 영유아를 위한 ‘한 책’ 프로젝트인 ‘One Book, One State: Kansas Reads to Preschoolers’ 등 49개의 프로젝트(8.4%)는 6회의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하였다.

그밖에 Kentucky 주 Bowling Green의 ‘One Book, One Campus, One Community’ 등 54개 프로젝트(9.2%)는 5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Massachusetts 주 Northampton의 ‘On the Same Page’ 등 76개 프로젝트(13.0%)는 4회, Michigan 주 Chelsea의 ‘Chelsea Reads Together’ 등 88

개 프로젝트(15.1%)는 3회, California 주 Pico Rivera의 'One Book, One City' 등 95개 프로젝트(16.3%)는 2회의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Pennsylvania 주 Lancaster and York Counties의 'United We Read' 등 148개 프로젝트(25.3%)는 단 한 번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등록된 전체 584개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74.7%, 즉 사분의 삼 정도가 적어도 2회 이상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한 책' 프로젝트가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일회성이기보다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진 독서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나. '한 책' 프로젝트의 진행 프로그램 분포



〈그림 2〉 연도별 시작 프로젝트의 진행 횟수 비율 분포: 2002년-2007년

'한 책' 독서운동의 지속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새로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2003년 6월 현재까지 몇 회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지 〈그림 2〉와 같이 비율을 살펴보았다.

2002년에는 모두 129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해이다. 이 해 시작된 129개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18개는 단 1회만 시행되었으나(14.0%), 2회 진행한 프로젝트는 11개(8.5%), 3회 진행한 프로젝트는 16개(12.4%)가 있고, 4회와 5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로젝트가 각각 15개씩 있다(11.5%). 프로그램을 6회 진행한 프로젝트는 23개(17.8%), 7회 진행한 프로젝트는 12개(9.3%) 있었고, 8회와 9회씩 프로그램을 시행한 '한 책' 프로젝트들은 각각 4개씩 있다(3.1%).

2002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오래 지속되고 있다. Winchester의 'Winchester

Reads', Concord의 'Concord Reads', Long Beach의 'Long Beach Reads One Book' 등 3개 프로젝트는 모두 11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Cincinnati의 'On the Same Page Cincinnati', Austin의 'Citywide Reading Event', Sycamore의 'Sycamore: One Community Reading Together' 등 7개 프로젝트는 모두 10회 진행되었다. Eastern Connecticut의 'One Book, One Region'은 2013년을 포함하여 모두 12회 프로그램이 되었고, 2006년에는 어른, 어린이, 십대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책을 읽기도 하였다. 이처럼 10회 이상 꾸준히 프로그램을 진행한 '한 책' 프로젝트는 모두 17개로 전체의 8.5% 정도이다. 그러나 그보다 적은 횟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어도 최근까지 이를 진행하였으면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Illinois 주 Bloomington-Normal의 'A Tale for Two Cities'는 2006년과 2008년을 건너뛰었지만 2011년까지 모두 8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또한 Maine 주 Bath and Brunswick의 'Midcoast Community Read'도 2009년까지 등록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매년 꾸준히 어른과 청소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책을 읽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 최근 진행 상황을 등록하지 않았으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다.

2003년에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들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Massachusetts 주 Falmouth의 'What's Falmouth Reading?'으로 2013년까지 모두 13회 진행하였고 California 주 Santa Monica의 'Santa Monica Reads', Iowa 주의 주 전역 프로젝트인 'All Iowa Reads', New York 주의 Western New York 지역 'A Tale for Three Counties' 세 개는 모두 2013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11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편 Georgia 주 Gwinnett County의 'Gwinnett Reads', California 주 Silicon Valley의 'Silicon Valley Reads', Ohio 주 Bowling Green의 'Bowling Green Community Reads'는 2011년까지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간에 일 년에 두 차례씩 하기도 하여 모두 10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New Hampshire Nashua의 'One City, One Book'와 Utah 주 Park City의 'One Book, One Community'는 매년 한 차례씩 모두 9회 진행하였다. 이들 여섯 개의 '한 책' 프로젝트는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는 2011년까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전까지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향후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2004년 시작된 93개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Ohio 주 Alliance의 'One-Book, One-Community'와 Texas 주 Mansfield의 'Mansfield Reads! One City, One Book'은 2012년까지 9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Minnesota 주 Eden Prairie의 'Eden Prairie Reads', Pennsylvania 주 Warren County의 'One Book, One County' 등 네 개 프로젝트는 2011년까지 모두 8회 진행하였다. 2005년 시작된 76개 '한 책' 프로젝트들 중 West Virginia 주의 주 전역 프로젝트인 'One Book, One

West Virginia'는 2012년까지 8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Nebraska주의 주 전역 프로젝트인 'One Book One Nebraska'와 Massachusetts 주 Norwell의 'Norwell Reads' 등 네 개 프로젝트는 2011년까지 모두 7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6년 시작된 63개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New Hampshire 주 Conway(Mt. Washington Valley)의 '1 Book 1 Valley', Kansas 주 Iola의 'Iola Reads'는 모두 7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Illinois 주 Wilmette의 'One Book, Everybody Reads'와 New York 주 Schenectady의 'One County, One Book'은 매년 한 차례씩 2011년까지 모두 6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Book 1 Valley'는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2013년까지 진행하였던 것에 비하여, 'Iola Reads'는 매년 2회씩 2009년까지만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7년 시작된 75개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된 California 주 Thousand Oaks의 'Thousand Oaks Reads--One City, One Book'은 2012년까지 매년 한 번씩 6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Massachusetts 주 Hamilton-Wenham의 'Two Books for Two Towns'는 2010년에는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2011년에는 건너뛰고 다시 2012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Massachusetts 주 Sharon의 'One Book, One Town: Sharon Reads Together', Kansas 주의 주 전역 프로젝트 'Kansas Reads'와 Texas 주 Allen의 'ALLen READS'는 매년 한 차례씩 2011년까지 모두 5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5.3%). 이들 중 'ALLen READS'는 매년 어른과 청소년으로 나누어 책을 읽었다.

2007년에는 단 한 차례만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로젝트가 42개로 비율이 가장 높고(56.0%), 그 다음으로 2회 진행한 프로젝트가 21개이다(28.0%).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에는 22개 지역사회가 'The Big Read'에 참여함으로써 '한 책' 프로젝트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The Big Read'에 참여한 지역사회 중 South Carolina 주 Charleston County의 'Charleston County Big Read'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도 이후 같거나 다른 이름으로 별도의 '한 책' 독서운동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Charleston County Big Read'는 2007년 'The Big Read'에 참여하여 Zora Neale Hurston의 *Their Eyes Were Watching God*을 읽었고, 2011년에는 자체적인 '한 책' 프로젝트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그밖에 Virginia 주의 주 전역 프로젝트인 'The Big Read in Virginia', Connecticut 주 Bridgeport의 'The Big Read', Connecticut 주 Norwalk의 'Big Read' 및 Louisiana 주 Baton Rouge의 'The Big Read: One Book/One Community'는 이후 한 차례씩 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The Big Read'로서 했을 뿐, 이들이 독자적인 '한 책' 프로젝트로 진행되거나 발전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들 가운데 2011년 이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등록한 '한 책' 프로젝트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2002년 시작 129개 프로젝트 중 12개(9.3%), 2003년 시작 86개 프로젝트 중 9개(10.5%), 2004년 시작 93개 프로젝트 중 6개(6.5%), 2005년 시작 76개 프로젝트 중 6개(7.9%), 2006년 시작 63개 프로젝트 중 4개(6.3%), 그리고

2007년 시작 76개 프로젝트 중 6개(8.0%) 뿐으로 평균 8.0% 정도이다. 이들 중 극소수가 2013년까지 프로그램을 등록하였을 뿐, 나머지는 2011년이나 2012년까지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초기 ‘한 책’ 프로젝트의 지속성

‘한 책’ 독서운동의 지속성은 초기에 시작된 프로젝트들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한 책’ 프로젝트는 당연히 Seattle의 ‘Seattle Reads’이다. ‘Seattle Reads’는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는 2011년까지 13개 프로그램만 등록되어, 프로그램 횟수로는 ‘One Book, One Chicago’가 더 많이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2013년 현재까지 매년 오월 꾸준히 진행되어 실제로는 모두 1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Seattle Public Library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2년 Amy Waldman의 *The Submission*을 읽었고, 2013년에는 Gregory Martin의 *Stories for Boys*를 읽었다.<sup>12)</sup> 따라서 단연코 ‘Seattle Reads’가 선도적 프로젝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꾸준한 ‘Seattle Reads’의 역사가 바로 ‘한 책’ 독서운동의 역사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한편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등록된 ‘한 책’ 프로젝트는 ‘One Book, One Chicago’로서 2001년 가을에 시작하여 2008년까지 모두 14회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Chicago Public Library가 유지하고 있는 ‘One Book, One Chicago’ 웹사이트를 보면 2012년까지 매년 두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실제로는 총 20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매년 두 권씩 모두 스무 권의 책을 읽었다. 한편 ‘One Book, One Chicago’는 2013년부터 변화를 시도하며, 예전과 같이 봄과 가을에 각각 선정하여 읽었던 ‘한 권의 책(one book)’이 아니라 “모든 시카고 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하나의 주제(one theme integral to the lives of all Chicagoans)”에 초점을 맞추어 일 년 내내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One Book, One Chicago, 2013-2014’는 파일럿 사업으로서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 년 동안 우선 Isabel Wilkerson의 *The Warmth of Other Suns: The Epic Story of America's Great Migration*을 읽고, ‘이주(Migration)’를 주제로 삼아 책, 영화, 공연, 강연, 스토리텔링,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sup>13)</sup>

이처럼 ‘One Book, One Chicago’와 같이 오래 지속된 ‘한 책’ 프로젝트는 변화와 혁신을 시도함으로써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안정성과 지속성의 역설을 극복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앞서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 2004년 ‘Seattle Reads’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작가(one author)’의 여러 책을 읽어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으나 이듬해인 2005년 다시 한 작가

12) Seattle Public Library, *Seattle Reads*, 2013.

〈<http://www.spl.lib.wa.us/audiences/adults/seattle-reads>〉 [cited 2013. 7. 4].

13) Chicago Public Library, *One Book, One Chicago*, 2013.

〈[http://www.chipublib.org/eventsprog/programs/onebook\\_onechgo.php](http://www.chipublib.org/eventsprog/programs/onebook_onechgo.php)〉 [cited 2013. 7. 4].

의 ‘한 책’으로 회귀함으로써 정착된 바 있다. 다시 회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성이라고 하는 ‘한 책’ 독서운동의 중요한 요소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One Book, One Chicago’의 새로운 시도의 성공여부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밖에도 초기에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들이 꾸준한 지속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에 시작된 Kansas 주 Lawrence의 ‘Read Across Lawrence’는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 웹사이트에는 2010년까지 시행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New York 주 Buffalo의 문학단체인 Just Buffalo Literary Center가 주관하여 2000년 시작된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은 2007년까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7년부터 ‘The Big Read’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름이 바뀐 채 진행되었다. 즉 ‘The Big Read’ 2007/08에 참여한 데 이어 2009/10에도 선정되어 2010년 2월에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를 읽었다.<sup>15)</sup> 그러나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 자체는 2007/08년부터는 ‘Babel’로 이름을 바꾸고 매년 4권의 책을 함께 읽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독서토론을 중요시하지만, 저자 초청 강의로 매우 중시한다. 2013/14년 시즌 동안 4권의 책을 읽고, 그 저자들을 초청할 계획을 가짐에 따라 2013년 10월에는 *Directions to the Beach of the Dead*의 저자 Richard Blanco의 방문, 11월에는 *The Joy Luck Club*의 저자 Amy Tan의 방문, 2014년 3월 *Topdog/Underdog*의 저자인 Suzan-Lori Parks의 방문, 4월에는 *Cutting for Stone*의 저자인 Abraham Verghese의 방문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sup>16)</sup>

2000년 New York 주 Rochester의 Writers & Books라는 문학단체가 시작한 ‘If All of Rochester Read the Same Book’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 웹사이트에는 2008년까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웹사이트를 보면 이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하면서 2013년 3월 Luis Alberto Urrea의 *Into the Beautiful North*를 읽었고 그달 27일에는 작가가 방문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sup>17)</sup> 다시 말하면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한편 Writers & Books는 2008년과 2009년, ‘The Big Read’에 참여하였는데, 원래 ‘The Big Read’ 기금을 받게 되면 이전에 진행하던 ‘한 책’ 프로젝트의 이름을 ‘The Big Read’로 변경하여 치르는 것과는 달리, 별도로 가을에 ‘The Big Read’ 행사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If All of Rochester Read the Same Book’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초기에 시작된 ‘한 책’ 프로젝트들이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 웹사이트에 최근 진행한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장 꾸준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14)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12.

15) Just Buffalo Literary Center, Inc,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 <<http://www.justbuffalo.org/index.php>> [cited 2009. 8. 5].

16) Just Buffalo Literary Center, Inc, *Babel*, <<http://www.justbuffalo.org/index.php>> [cited 2013. 7. 5].

17) Writers & Books, *If all of Rochester Read the Same Book*, <<http://www.wab.org/type-of-event/if-all-of-rochester-read-the-same-book/>> [cited 2013. 7. 5].

## 라. ‘한 책’ 프로젝트의 최근 지속성

2013년 6월 현재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 그동안 두 번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1년 이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등록된 ‘한 책’ 프로젝트는 모두 53개이다. 그중 2012년이나

〈표 3〉 2011년까지 등록 ‘한 책’ 프로젝트

주	지역	프로젝트 명	횟수	시작	최근
Washington	Seattle	Seattle Reads	13	1998	2013
New York	Syracuse and Onondaga County	Central New York Reads (CNY Reads One Book)	10	2001-02	2013
Minnesota	Austin	Citywide Reading Event (AustinPage Turner)	10	2002	2013
Illinois	Sycamore	Sycamore: One Community Reading Together	10	2002	2013
Illinois	Bloomington-Normal	A Tale for Two Cities	8	2002	2012
Missouri	Boone and Callaway Counties	One READ	10	2002	2013
New York	Central Valley	Woodbury Reads	10	2002	2013
New York	Long Island	Long Island Reads - One Island - One Book	10	2002	2013
New Hampshire	Nashua	One City, One Book	9	2003	2013
Utah	Park City	One Book, One Community	9	2003	2012
Georgia	Gwinnett County	Gwinnett Reads	10	2003	2012
California	Silicon Valley	Silicon Valley Reads	10	2003	2013
Minnesota	Eden Prairie	Eden Prairie Reads	8	2004	2013
Colorado	Gunnison and Crested Butte	One Book, One Valley	4	2004	2012
Pennsylvania	Warren County	One Book, One County	8	2004	2011
Indiana	South Bend	One Book, One Campus	7	2004-05	2012
Nebraska	* State-wide	One Book One Nebraska	7	2005	2013
Massachusetts	Norwell	Norwell Reads	7	2005	2013
Massachusetts	Brookline	Brookline Reads	6	2005(2004)	2011
Massachusetts	Groton	Groton Reads	7	2005	2013
Massachusetts	Ipswich	Ipswich Reads...One Book	7	2005	2013
Illinois	Wilmette	One Book, Everybody Reads	6	2006	2013
California	Fullerton	Fullerton Reads	5	2006	2013
New York	Schenectady	One County, One Book	6	2006	2013
Massachusetts	Sharon	One Book, One Town: Sharon Reads Together	5	2007	2013
South Carolina	Charleston County	Charleston County Big Read	3	2007	2013
Kansas	State-wide	Kansas Reads	5	2007	2013
Texas	Allen	ALLEN READS	5	2007/08	2013
Massachusetts	Pittsfield	Pittsfield READS!	4	2008	2011
Illinois	Deerfield, Bannockburn & Riverwoods	One Book, One Zip Code	4	2008	2012
Montana	Bozeman	One Book-One Bozeman	4	2008	2013
Connecticut	Fairfield	One Book, One Town - Fairfield Reads Together!	4	2008	2012
New Hampshire	Hanover	Everyone is Reading	3	2009	2013



2013년까지 프로그램을 등록한 프로젝트는 20개이며, 나머지 33개는 2011년까지만 등록되어 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중 일부는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현재진행형’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분명 현재까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만 등록하고 있는 ‘One Book, One Chicago’를 비롯하여, 2011년까지만 등록한 ‘Seattle Reads’ 등 ‘한 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든 지역사회가 매년 프로그램 진행 후 즉시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 등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11년까지 등록되어 있는 33개 ‘한 책’ 프로젝트에 대하여 각 프로젝트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관 기관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이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네 번째 컬럼은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 웹사이트에 2011년까지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으로 등록된 각 ‘한 책’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진행 횟수를 나타내며, 여섯 번째 컬럼은 이 연구에서 확인한 실제 최종 시행연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Seattle Reads’는 2011년까지 모두 13회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3년까지도 진행하였다.

2011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한 33개 ‘한 책’ 프로젝트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는 이들 대부분이 2013년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을 보여주었다. New York 주 Syracuse 및 Onondaga County의 ‘CNY Reads One Book’은 지역의 문화, 교육 및 사회단체들이 컨소시엄(CNY Reads Consortium)을 구성하여 2001년부터 매년 진행했던 프로젝트이다. 지금은 Onondaga County Public Library가 주관하면서 2012년에는 Marcus Zusak의 *The Book Thief*를 읽었고, 2013년에는 T.C. Boyle의 *The Tortilla Curtain*을 읽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New York 주 전체에서 가장 큰 ‘한 책’ 프로젝트임을 자부하고 있는데,<sup>18)</sup> 벌써 십삼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Minnesota 주 Austin의 Austin Public Library가 주관하여 2002년 시작된 ‘Austin Page Turner’는 주로 Minnesota 출신 작가들의 책을 읽고 있는데, 2010년 William Kent Krueger의 *Thunder Bay*를 읽으면서 십주년을 기념하였다. 이어서 2011년에는 Kao Kalia Yang의 *The Latehomecomer: a Hmong Family Memoir*, 2012년에는 Ron Handberg의 *Deadly Reunion*, 2013년에는 Peter Geye의 *Safe From the Sea*를 읽었고, 벌써 2014년 초에 진행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sup>19)</sup> New Hampshire 주 Hanover의 Howe Library가 주관하여 2009년부터 시작된 ‘Everyone is Reading’도 2012년 Donovan Hohn의 *Moby-Duck*을 읽었고, 2013년 Michael Sims의 *The Story of Charlotte’s Web*을 읽기로 하였다.<sup>20)</sup> 이들도 2014년에 읽기 위한 책을 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계속 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assachusetts 주 Sharon의 ‘One

18) CNY Reads, *Previous CNY Reads Selections*, <<http://www.onlib.org/cnyreads/previous.htm>> [cited 2013. 7. 8].

19) Austin Page Turners, *Austin Page Turners plan for 2014*, 2013, <<http://www.austinpageturners.org/>> [cited 2013. 7. 8].

20) Howe Public Library, *Everyone is Reading: A Month-Long Community Reading Event*, 2013, <<http://www.thehowe.org/interior.php/pid/3/sid/8/tid/53>> [cited 2013. 7. 8].

Book, One Town: Sharon Reads Together' 또한 2013년 프로그램을 마치고 2014년 읽을 책의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sup>21)</sup>

New York 주 Woodbury의 'Woodbury Reads'는 2013년 Michael Shaara의 Pulitzer 상 수상자인 *The Killer Angels*를 읽었다.<sup>22)</sup> Missouri 주 Boone County의 Daniel Boone Regional Library가 주관하는 'One READ'는 2002년 시작하여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3년에는 Keija Parssinen의 *The Ruins of Us*를 읽었다.<sup>23)</sup> New Hampshire 주 Nashua Public Library도 2013년 'One City, One Book 2013: Nashua Reads The Widower's Tale'를 진행하였다.<sup>24)</sup> California 주 Santa Clara County 15개 도시가 함께 진행하는 'Silicon Valley Reads'는 2013년 11번째 행사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처(invisible wounds of war)'라는 주제를 다룬 Brian Castner의 *The Long Walk*과 Sue Diaz의 *Minefields of the Heart*, 두 권의 책을 읽기로 하였다. 'Silicon Valley Reads'는 2002년부터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요즘 주제(contemporary theme)'를 다루는 한 권 이상의 책들을 읽으면서, 어린이들도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읽고 가족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sup>25)</sup>

한편 일부 '한 책'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다소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Illinois 주 Sycamore의 Sycamore Public Library는 2002년부터 'One Community Reading Together'를 시작하여 2011년에는 Jamie Ford의 *Hotel on the Corner of Bitter and Sweet*를 2012년에는 Sara Gruen의 *Ape House*를 각각 읽었다.<sup>26)</sup> 그런데 2013년에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끝어다 6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 'Best Seller Summer'를 진행하면서 한 권의 책 대신 여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여러 권을 읽자고 하였다.<sup>27)</sup>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2004년부터 Minnesota 주 Eden Prairie Public Library가 주관해 온 'Eden Prairie Reads'는 2013년 십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전과 다른 문학 장르를 시도한다고 하며, *The Scribner Anthology of Contemporary Short Fiction* 개정2판에 수록된 열편의 단편소설을 읽기로 하였다.<sup>28)</sup> Massachusetts 주 Groton의 Groton Public Library 주관으로 2005년 시

21) Sharon Public Library, *One Book, One Town: Sharon Reads Together, OBOT 2014*, 2013,

<http://onebookonetown.org/about/> [cited 2013. 7. 9]

22) Woodbury Public Library, 2013, <http://woodburylibraryocny.org/home> [cited 2013. 7. 8]

23) Daniel Boone Regional Library, *One READ*, 2013, <http://oneread.dbri.org/> [cited 2013. 7. 8]

24) Nashua Public Library, *One City, One Book 2013: Nashua Reads The Widower's Tale*, 2013, <http://www.nashualibrary.org/nashuareads.htm> [cited 2013. 7. 8].

25) Silicon Valley Reads, *Silicon Valley Reads 2013 to focus on 'invisible wounds of war.'* 2013, <http://siliconvalleyreads.org/2013-14/news.asp>; *Silicon Valley Reads is a community reads program for the region.* <http://siliconvalleyreads.org/2013-14/aboutsvr.asp> [cited 2013. 7. 8].

26) Sycamore Public Library, *One Community Reading Together*, 2012 <http://onecommunity2012.blogspot.kr/> [cited 2013. 7. 8].

27) Sycamore Public Library, Adult Services Department, *Adult Programs*, 2013, [http://www.sycamorelibrary.org/services/adult\\_services.shtml#programs](http://www.sycamorelibrary.org/services/adult_services.shtml#programs) [cited 2013. 7. 8]

작된 ‘GrotonREADS’는 2013년 ‘GrotonREADS & WRITES’로 바뀌어 독서뿐만 아니라 글쓰기도 함께 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올해는 3월부터 4월 사이 Stephen King의 *On Writing: A Memoir of the Craft*를 읽고 작가를 초청하며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 영화 상영 등 행사를 진행하였다.<sup>29)</sup>

일부의 ‘한 책’ 프로젝트는 2012년까지는 진행되었으나 아직 2013년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 Georgia 주 Gwinnett County의 ‘Gwinnett Reads’는 2012년 Natasha Trethewey의 *Thrall*을 읽었으나, 2013년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sup>30)</sup> Illinois 주 Normal과 Bloomington의 두 도시에서 Normal Public Library와 Bloomington Public Library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Tale for Two Cities’는 2011년에는 Homer Hickam의 *Rocket Boys*를 읽었고, 2012년에는 *To Kill a Mockingbird*를 읽었다. 그러나 아직 2013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다.<sup>31)</sup> 만약 2013년 후반부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 있다면 대개 선정된 책이나 일정을 공지하기도 하는데 이들 몇 개의 ‘한 책’ 프로젝트는 이러한 공지가 없다. 따라서 이들이 계속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몇 개의 ‘한 책’ 프로젝트는 2011년 이후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다. Massachusetts 주 Brookline의 ‘Brookline Reads’는 2011년 Tom Rachman의 *The Imperfectionists*를 읽었으나,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시작이라고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4년 시작하였고, 이후 2009년까지 매년 진행되었다. 2009년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보스턴 미스터리와 폭력(Theme: Mystery and Mayhem in Boston)’이란 주제로 Linda Barnes, William Tapply, William Martin와 Cynthia Peale(Nancy Zaroulis) 같은 작가들의 보스턴 지역 관련 추리소설을 읽었고, 한 해를 건너 2011년에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sup>32)</sup> 따라서 만약 격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2013년에 재개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아주 중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전체 33개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Pennsylvania 주 Warren County의 ‘One Book, One County’ 등 3개의 ‘한 책’ 프로젝트(9.1%)는 2011년까지, Illinois 주 Bloomington-Normal의 ‘A Tale for Two Cities’ 등 7개(21.2%)는 2012년까지, 나머지 23개 프로젝트는 모두 2013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8) Eden Prairie Reads, *The 2013 Choice*, 2013, <<http://epreads.org/about-the-author>> [cited 2013. 7. 8].

29) Groton Public Library, *Groton READS & WRITES 2013 : Sharing Stories*, 2013, <<http://gpl.org/events-and-activities/grotonreads/>> [cited 2013. 7. 8].

30) Gwinnett County Public Library, *Gwinnett Reads. A County-Wide Reading Event*, 2013, <<http://www.gwinnettpl.org/calendar/gwinnettreads/index.html>> [cited 2013. 7. 8].

31) Normal Public Library, *Tale for Two Cities*, 2003, <<http://www.normalpl.org/activities/adults/tale/>> [cited 2013. 7. 8].

32) The Public Library of Brookline, *Brookline Reads*, 2013, <<http://www.brooklinelibrary.org/get/brookline-reads>> [cited 2013. 7. 9].

따라서 50개의 ‘한 책’ 프로젝트들이 2012년 혹은 2013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을 ‘현재진행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전체의 8.6%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편 2010년 이전까지 프로그램을 등록한 ‘한 책’ 프로젝트들 가운데 아직까지 시행되는 것들이 있는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One Book, One Chicago’, ‘If All of Rochester Read the Same Book’,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 ‘Read Across Lawrence’ 등과 같이 최근 프로그램 정보는 등록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몇 개의 대표적 ‘한 책’ 프로젝트들을 감안한다면, 최대 9-10% 정도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IV. 맺음말

‘한 책’ 독서운동이 지난 1998년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이래 지난 십오 년 동안 584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일부는 중단되었으나, 상당수는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이 지난 십오 년 동안 보여준 발전의 궤적은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과 2001년 ‘One Book, One Chicago’이 등장하였던 ‘한 책’ 독서운동의 태동기(1998년-2001년), 오 년 사이 모두 486개의 새로운 ‘한 책’ 독서운동이 시작되었던 성장기(2002년-2006년), 그리고 2007년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한 ‘The Big Read’ 이니셔티브의 등장으로 전국적 문학 독서의 열기가 다시 점화된 재도약기(2007년-현재)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 584개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74.7%, 즉 사분의 삼 정도가 적어도 2회 이상 진행되었으며, 50개(8.9%)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초기에 출범한 ‘Seattle Reads(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 ‘One Book, One Chicago’, ‘If All of Rochester Read the Same Book’,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 등 십여 개의 ‘한 책’ 프로젝트들은 벌써 십여년째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독서운동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또한 읽는 책의 장르와 종수, 주제, 프로그램 기간과 진행방향 등에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미국 공공도서관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혁신”의 하나로 평가되는 ‘한 책’ 독서운동의 가치는 이처럼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오십여 개 ‘한 책’ 프로젝트의 지속성과 더불어, 비록 대부분 단 한번으로 그치긴 하지만 ‘The Big Read’를 통해 많은 지역사회들이 계속 참여하게 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표준적이며 전형적인 ‘한 책’ 독서운동의 형태에 변화를 시도하는 몇몇 주요한 ‘한 책’ 프로젝트의 변화를 통해, 보다 새로워지는 “혁신”의 향후 발전 동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의 지속성과 확산성의 현황만 확인하였을 뿐, 이러한 현상이 실질적으로 개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독서 취향이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실제적인 독서 인구의 증가 및 독서 분위기 확산, 도서관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들과의 협력 증진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의 질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주요한 '한 책' 독서운동의 사례들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 개별 지역사회의 특성, 도서관과 사서의 노력, 협력하는 기관단체들의 활동, 독자들의 경험과 의견 등 '한 책' 독서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서울 : 조은글터, 2013.
- 윤정옥.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The Big Read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311-333.
-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3), pp.63-81.
-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5-32.
-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5. 9), pp.27-44.
- 이용재.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9), pp.5-23.
- 이용재, 황은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성과 실천방안 연구: 독서토론포럼자료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63권, 제2호(2008. 12), pp.48-70.
-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전략: '원북 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47-265.
- 이용재. "한국 독서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3), pp.5-25.
- Dempsey, Beth. "One Great Idea: Why Your Library Should Get on the One Book, One Community Bandwagon," *Library Journal*, Vol.134, No.14(September 2009), pp.19-22.
- Fuller, Danielle, and Sedo, DeNel Rehberg. "Mass Reading, New Knowledge?: Reading for Community in Contemporary Southern Ontario." *Presentation delivered at "Material*

- Cultures and Creation of Knowledg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The Centre for the History of the Book), 22-24 July, 2005.*
- Fuller, Danielle, and Sedo, DeNel Rehberg. *Minireport to the Organizing Committee of One Book, One Community, Kitchener/Cambridge/Waterloo. ON, Canada, 9 November 2004.*
- Jewett, Pamela C., Wilson, Jennifer L., and Vanderburg, Michelle A. “The Unifying Power of a Whole-School Read.”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Vol.54, No.6(March 2011), pp.415-424.
- Rodney, Mae L. “Building Community Partnerships: The ‘One Book, One Community’ Experience.” *C & RL News*, Vol.65, No.3(2004), pp.130-2, 155.
- Sumner, Ward. “One Jackson, One Book.” *Mississippi Libraries*, Vol.68, No.1(2003), pp.3-5.
- University of Birmingham. *Beyond the Book: Mass Reading Events and Contemporary Cultures of Reading in the UK, USA and Canada*. 2006. <<http://www.beyondthebookproject.org>> [cited 2007. 1. 8]
- Watkins, Christine. “Grassroots Report: Hundreds of Communities, Hundreds of Books.” *American Libraries*, Vol.34, No.2(2003a), p.55.
- Watkins, Christine. “Grassroots Report: One Country, One Conference, One Book.” *American Libraries*, Vol.34, No.3(2003b), p.83.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Yoon, Cheong-Ok. “A Study on the Community Reading Campaigns: ‘The Big Read’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2(2009. 6), pp.311-333.
- Yoon, Cheong-Ok. “The Action Plans for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A Case Study of ‘Reading Cheongj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2, No.1(2008. 3), pp.63-81.
- Yoon, Cheong-Ok. “An Analysi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 Case Study of Campaig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1, No.1(2007. 3), pp.5-32.
- Yoon, Cheong-Ok. “An Analysis of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9, No.3(2005. 9), pp.27-44.
- Lee, Yong-Jae.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nd Communities through ‘One Book, One

- City' Reading Campaig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3(2009. 9), pp.5-23.
- Lee, Yong-Jae. & Hwang, Eunju.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Action Plans for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Doseogwan*, Vol.63, No.2(2008. 12), pp.48-70.
- Lee, Yong-Jae. "The Present Stage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One Book, One City' Campaign: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Busan' Pro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9, No.3(2008. 9), pp.247-265.
- Lee, Yong-Jae. "The Present Stage and Prospects of the Reading Campaig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One Book, One City'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7, No.1(2006. 3), pp.5-25.

